

## 필리핀의 이슬람화: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마드라사(Madrasah) 통합교육

조 태 영\*\*

### I. 머리말

이슬람 부흥운동은 서구문명을 거부하고 코란(Al-Qur'an)과 하디스(Hadith)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목표 하에 1970년대 중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로 확산되었다. 서구문명에 대한 무슬림들의 환멸과 아랍-이스라엘 간의 투쟁, 중동의 석유로 인한 부의 획득, 그리고 이란혁명의 성공은 이슬람 부흥운동을 성장시킨 주요배경이었다(Mohamad 1991: 221). 하지만 중동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각국의 역사, 문화적 특성, 경제·사회적 발전의 수준, 무슬림 인구비율, 교육제도 그리고 이슬람의 정치화 수준에 따라 이슬람 부흥운동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났다(김동엽 2013: 268).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기독교(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국가이다.<sup>1)</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378). 이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귀중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원, unskinnny@hanmail.net

1) 필리핀은 정교분리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필리핀 헌법 3조 5항에는 “특정 종교 설립의 지지나 또는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으며, 차별과 편애가 없는 자유로운 종교적 신앙 고백과 종교 활동을 영구히 허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religion\\_in\\_the\\_Philippines](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religion_in_the_Philippines)). 하지만 스페인

'필리핀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sup>2)</sup> 모로(Moro) 분리 독립운동은 그 동안 그들에 가려진 필리핀 이슬람 사회 스스로의 인식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의 이슬람 부흥운동은 종교적 목표보다는 다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무슬림들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정치적 투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 또한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다르 알 하르브(Dar-al-harb)'<sup>3)</sup>의 관점에 입각하여 비-이슬람 정부로부터 이슬람의 정통성과 종교적 의무를 위해 탈환해야 할 지역으로 여겼다(김성철 2000: 21). 따라서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 부흥운동은 정부와의 갈등 안에서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필리핀 무슬림 학자 아부바카르(Abubakar, Asiri J)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존속을 위한 일곱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바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 및 필리핀 정부와의 관계 안에서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과제 중 세 개 사항은 '이슬람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아랍의 이슬람 교육기관에서 필리핀 무슬림들의 학업기회를 높인다. 2)이슬람 국가에서 유학한 필리핀 무슬림들을 국내로 복귀시킨다. 그리고 3)필리핀의 소외된 이슬람 지역에 마드라사(Madrasah) 설립을 장려한다(Madale 1988: 347). 실제 필리핀의 소수사회인 이슬람 사회가 자신

---

의 지배로 가톨릭은 필리핀에서 80%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종교가 되었다. 따라서 가톨릭 이외의 소수종교들이 공공연히 사회문화적 차별을 받아왔던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2) '방사모로(Bangsa Moro)'라고도 불리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본고에서는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3) 20세기 이슬람 부흥운동의 효시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사이이드 쿠틀브(Sayyid Qutb)는 세상을 '다르 알 이슬람(Dar-al-Islam, 이슬람의 평화)'과 '다르 알 하르브(Dar-al-Harb, 이교도의 폭력)'로 나누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이슬람 지역은 '다르 알 이슬람'으로 전환시켜야 할 목표였다.

들의 존재를 가시화시킨 배경에도 ‘이슬람 교육’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필리핀 이슬람 사회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을 간과할 수 없었던 아랍의 국가들은 민다나오와 술루에 이슬람 선교사를 파견하고 이슬람 사원 및 기관,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무슬림 청년들을 자국으로 초청하여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랍 국가에서 유학한 필리핀 무슬림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게 된 것(Majul 1985: 34-36)은 이슬람 교육이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자각시키고 단결시키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필리핀 사회의 이슬람 교육이 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은 1981년 필리핀 이슬람사무국(OCIA, Office of the Commission for Islamic Affairs)을 통해 조직된 ‘무슬림부(Ministry of Muslim Affairs)’였다(김성철 2000: 160). 무슬림부의 가장 큰 성과는 이듬해 1982년 교육부(교육부령 1221호)로부터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인 마드라사의 인가를 이룩해냈다는 것이다(Saifullah 2008: 69). 또한 이보다 앞서 197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최초로 민다나오 국립대학교(Mindanao State University)에 ‘킹파이살 이슬람-아랍어문학연구센터(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nd Arabic Studies)’를 개설했다. 계속해서 2004년 ‘마드라사 통합교육’<sup>4)</sup>의 시행은 정부와의 오랜 갈등에서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얻어낸 이슬람 교육의 성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결실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통합정책에 결부된 외면적인 결과일 뿐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 부흥운동의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룬 성과는 아니라

4) 2004년 필리핀 교육부령 51호 ‘초등공립학교와 사립 마다리스를 위한 표준커리큘럼(Standard Curriculum for Elementary Public Schools and Private Madaris)’에 따라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초등공립학교에는 아랍어와 이슬람교과목이 삽입되었으며, 사립 마드라사에는 기초교육커리큘럼이 삽입되었다. 본고는 편의상 양측의 교육과정을 모두 가리켜 ‘마드라사 통합교육’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는 사실이다.

본고는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현황을 통해 필리핀 이슬람화의 실천상황을 가늠해본다. 특히, 2004년 시행된 ‘마드라사 통합 교육’의 실태와 제반문제들을 중심으로 필리핀 이슬람 교육에 있어서 이슬람화의 상황을 재조명한다. 필리핀의 이슬람화 실천을 이슬람 교육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슬람 부흥운동의 주요전략은 ‘교육’과 ‘공동체 조직’을 통한 근본적인 이슬람 사회의 건설이기 때문이다(김동엽 2013: 267). 특히, 1970년대 중등으로부터 이슬람 부흥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슬람 교육이 추구해온 바는 서구식 교육으로부터의 분리였다(Niyozov et al. 2011: 15). 따라서 이슬람화는 무슬림 교육자들에게 서구와의 투쟁을 위한 주요도구가 되었으며, 마드라사는 서구식 교육의 침투로부터 무슬림을 보호하기 위한 희망으로 여겨졌다(Niyozov et al. 2011: 21). 말레이시아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 알아타스(Al-Attas)는 서구식 교육이 깊이 침투한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들의 화합과 문화적 정체성, 전통, 그리고 이슬람 철학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슬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으며(Al-Attas 1989: 10), 파루키(Faruqi) 역시 ‘움마(Ummah, 이슬람 공동체)’가 침체하게 된 주요 원인을 세속적 교육체제로 보고 이슬람 교육을 강조했다(Faruqi 1982: 175). 따라서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 교육의 현황은 필리핀 세속정부와의 관계 안에서 이들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이슬람화의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고는 이슬람 교육이 필리핀의 젊은 무슬림들의 국가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을 통해 필리핀 국가통합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다. 일차적으로 국립 필리핀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의 이슬람 연구소(I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를 방문하여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이곳에서 이슬람 교육 분야의 학자 및 무슬림 대학원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을 현장 검토하기 위해 마닐라 무슬림 거주지 퀴아포(Quiapo)에 위치한 ‘골든(Golden) 모스크’와 타귀(Taguig) 지역의 ‘팡안담안(Pangandaman) 마드라사’를 방문하여 이슬람 학자 및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슬람 교육의 현장을 확인하였다.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민다나오 지역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국립 필리핀대학교 이슬람 연구소와 마닐라 주변의 무슬림 공동체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본고의 현지조사는 인적조사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민다나오에 방문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인터뷰를 위한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마드라사의 교사들은 모두 민다나오 출신의 무슬림들로 선정했다. 현장 방문한 타귀(Taguig) 지역의 주민들과 팡안담안 마드라사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모두 민다나오에서 상경한 무슬림들이었다.

본고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제 2 장에서는 과거 필리핀의 이슬람 유입사와 현재의 이슬람 사회를 개괄 소개한다. 계속해서 제 3 장에서는 서구 식민지배가 이슬람 교육과 가치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필리핀 정부와의 갈등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슬람 교육의 발전 상황을 알아본다. 이후 제 5 장에서는 2004년 실시된 통합교육의 제반문제를 중심으로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현황을 가늠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본고의 논지를 정리하며, 이슬람화의 실천적 맥락 안에서 이슬람 교육이 소수사회인 필리핀 이슬람 사회에 부여하는 의미와 나아가 필리핀 국가통합에 있어서 신세대 무슬림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견해 본다.

## II. 필리핀 이슬람 문명의 유입과 오늘날의 이슬람 사회

필리핀 이슬람의 유입과 발전은 두 가지 관점에 기인한다. 첫째, 필리핀 이슬람의 유입은 필리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둘째, 필리핀 이슬람의 유입은 말레이 이슬람 발전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 짓는 기준은 문헌기록의 유무이다. 이슬람 유입 이전 필리핀 군도에서 인도 계통의 음절문자가 사용된 흔적이 있지만 사용시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 흔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역사시대의 기준으로 삼기에 무리가 따른다.<sup>5)</sup> 필리핀 군도에서 처음으로 널리 사용된 문자는 말레이 문화권에서 두루 사용된 자위(Jawi)문자이다. 14세기 초 말레이 반도 트렝가누(Terengganu)에서 처음 사용이 확인된 자위 문자(Othman et al. 1990: 47)는 이슬람 문명을 말레이 사회에 확산시킨 일등공신이었다. 이슬람 수용을 위해 이슬람 경전과 교리의 학습은 필수였다. 이슬람 경전을 말레이어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아랍문자는 말레이어에 알맞게 개량되었고 자위문자가 탄생되었다. 자위문자 사용은 말레이 사회의 이슬람 수용에 박차를 가했고 눈부신 발전을 도왔다. 이슬람 문화의 발전에 힘입은 말레이인들은 말레이 군도 이슬람 전파의 앞장이 되었다. 말레이인들이 방문한 지역에는 자위문자가 소개되었고 이슬람 전파의 도구가 되었다(Cho 2012: 98-99).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말레이 문화권에 속하

5)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와 같이 필리핀 군도에서도 인도문자의 변종이 사용되었다. 힌두 문명이 인도네시아 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인도 남부에서 들여온 팔라와(Pallava)문자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해양부 동쪽 끝에 위치한 필리핀 군도에는 인도 계통의 문자가 늦게 소개될 수밖에 없었다. 바이바인(Baybayin)문자, 타그반와(Tagbanwa)문자, 하누노오(Hanunoo)문자 그리고 카팜팡안(Kapampangan)문자 등은 필리핀 군도에서 14-16세기에 사용된 문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팔라와 문자를 모체로 두는 인도네시아의 카위(Kawi)문자로부터 발전되었다.

는 지역에서 발흥한 이슬람 왕국들은 모두 자위문자 필사전통을 발전시켰는데,<sup>6)</sup> 이 중 필리핀의 술루(Sulu) 이슬람 왕국은 ‘타르실라(Tarsillah)’ 문헌전통을 발전시켰다.<sup>7)</sup> 언어학적으로 말레이어권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필리핀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필리핀에서 자위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타당한 이유를 준다. 이슬람 신자라면 아랍문자를 능숙하게 읽고 쓰면서 이슬람 경전과 교리를 학습해야 하는데, 술루 이슬람 왕국이 일찍이 아랍문자 필사전통을 발전시켰다는 점은 필리핀의 이슬람 교육이 오랜 역사를 통해 성장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위문자로 기록된 술루 이슬람 왕국의 ‘타르실라’ 문헌에는 15세기 초 말레이 미낭카바우(Minangkabau)에서 ‘라자 바귄다 알리(Raja Baguinda Ali)’가 추종자들과 함께 술루 군도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aifullah 2008: 55). 라자 바귄다는 그보다 조금 늦게 술루 군도를 방문한 아랍인 ‘샤이드 아부 바카르(Sayed Abu Bakar)’와 연합하여 1,500년경 술루 이슬람 왕국을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말레이인은 술루 군도뿐만 아니라 민다나오(Mindanao) 섬의 이슬람 전파에도 앞장을 했다. 이후 말라카 왕국의 왕족 출신인 ‘샤리프 무함마드 카붕수안(Sherif Muhammad Kabungsuwan)’은 1520년경 민다나오의 마긴다나오(Maguindanao)에서 이슬람 포교활동과 더불어 이슬람 왕국을 건국하는데 큰 힘을 썼다(Saifullah 2008: 57). 말레이

6) 콜린스(Collins)는 말레이 세계의 범위를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와 말레이 반도 그리고 말레이어가 사용되는 필리핀 남부와 태국 남부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한다(Collins 1998: 1-3).

7)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언어학회인 미국의 ‘하계언어학회(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출간한 Ethnologue(17th Edition)에는 필리핀 군도의 180개 지역어 중 타우숙(Tausug)어, 사마(Sama)어, 그리고 야칸(Yakan)어 3개어만이 아랍문자 필사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imons 2014: 273-292). 이 중에서 타우숙어를 표기한 아랍문자를 ‘술랏숙(Sulat Sug)’ 문자라고 한다(Rosli et al. 2011: 4). 상기 지역어가 사용되는 지역은 모두 술루(Sulu) 이슬람 왕국이 번성한 술루 군도의 홀로(Jolo)시와 그 인근 지역이다.

인들이 앞서 이슬람을 수용하고 자위문자를 통해 말레이-이슬람 문화를 이룩한 점을 상기한다면, 술루 군도에 도착한 말레이인들은 단순한 이슬람 포교활동을 넘어 사회전반에 걸친 이슬람화에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술루 이슬람 왕국과 마긴다나오의 이슬람 왕국이 이슬람의 사회화를 위해 자위 문자에 기인한 아랍문자 필사전통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말레이어군에 유입된 아랍어 단어 ‘자힐리아(Jahiliah)’는 이슬람 이전의 미개한 시대를 의미한다(Cho 2012: 81). ‘자힐리아’의 의미대로라면 이슬람 문명은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기 이전부터 필리핀 군도에 문명시대를 열어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랍문자의 학습은 이슬람 교육을 위한 기초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아랍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필리핀 초기 이슬람 사회의 아랍문자 사용은 이슬람 제반지식의 학습을 포함한 이슬람 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필리핀 이슬람화의 기반을 다져주었다.

이후, 16세기 중엽 필리핀을 점령한 스페인은 식민지 운영을 수월케 하기 위해 기독교 선교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마닐라(Manila)와 바탕가스(Batangas)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이슬람 사회는 스페인의 기독교 세력에 밀려 민다나오 일부지역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필리핀 이슬람 사회는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십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사회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언어학회인 미국의 ‘하계언어학회(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가 최근 발표한 민족학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표 1>과 같이 크게 12개 종족으로 구분된다.<sup>8)</sup>

8)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의 수는 기관 및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국립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표 1>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구성 종족 및 거주지에 따른 분류

종족	지역	행정구역에 따른 거주지				
		팔라완	솔루 군도	민다나오		
		미마로파 (Mimaropa) 제4지구	무슬림자치구 (ARMM)	무슬림자치구 (ARMM)	잠보앙가반도 (Zamboanga) 제9지구	다바오 (Davao) 제11지구
1	마퐁(Mapun)	■	■			
2	발랑잉이(Balangingi)		■	■	■	
3	사마(Sama)	중부(Central)		■		
		팡우타란(Pangutaran)	■	■	■	
		남부(Southern)		■		
4	타우숙(Tausug)	■	■		■	
5	일리아넨(Ilianen)			■		
6	칼라간(Kalagan)					■
7	마귀다나오(Maguindanao)			■	■	
8	마라나오(Maranao)			■		
9	상일(Sangil)			■		
10	야칸(Yakan)		■	■	■	
11	콜리부간(Kolibugan)			■	■	
12	수바넨(Subanen)		■	■	■	

출처: (Simons 2014: 273-292)를 참고하여 작성

다 종족으로 구성된 무슬림은 필리핀 전체 인구의 약 5.5%인 약 5백 5십만 명으로 추산된다.9) 일부에선 필리핀 무슬림을 대략 6백 6십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하는데, 1970년대 무슬림 숫자가 약 2백 2십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0년 동안 3배나 성장한 것이다 (오부영 2008: 92). 이러한 사실은 모로 분리 독립운동 전개 이후 이슬람 부흥운동의 정신에 힘입은 이슬람 사회의 민족주의적 부활에 따른 이유와 함께 스페인 식민시대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이슬람으로 복귀하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0)

the Arts)'는 이들을 11개 종족으로 소개(<http://www.ncca.gov.ph/about-culture-and-arts/articles-on-c-n-a/article.php?i=232&igm=4>)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이슬람 연구의 개척자였던 고윙(Gowing 1979: 1-2)은 13개 종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종족을 나누는 기준인 방언(dialect)의 정확한 구분이 힘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언어학과 민족학을 배경으로 구분한 '하계언어학회(SIL)'의 민족학 자료를 따르기로 한다.

9) 2014년 필리핀 통계청이 발표한 필리핀 전체 인구는 100,617,630명이다. 이중 무슬림은 5.567%에 해당된다(<http://en.wikipedia.org/wiki/Philippines#Religion>).

다양한 종족과 언어집단으로 구성된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오늘날 ‘모로(Moro)’로 불리게 된 것은 스페인의 지배가 시작되고 부터이다.<sup>11)</sup> 스페인은 필리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톨릭을 전파했고, ‘모로’라는 용어는 가톨릭으로부터 무슬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모로’에는 필리핀 무슬림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적 잔재가 내포되어 있다. 오늘날 필리핀 무슬림 기성세대들은 ‘모로’ 용어에 적지 않은 반감을 가진다.<sup>12)</sup> 이들은 ‘모로’에는 필리핀 이슬람의 전통과 문화와는 무관한 정치적 의미만이 담겨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슬람의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다양한 언어와 종족으로 나뉘어 있던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모로’라는 용어를 통해 이슬람 정체성을 자각하고 화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필리핀 무슬림 기성세대들의 입장에 기댄다면 오늘날 ‘모로’를 통한 정치적 화합보다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슬람의 공통 범주 안에서 형성된 종교·문화적 단결이 필리핀 무슬림들의 내면에 더욱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hrke et al. 1977: 182). 이러한 사실은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필리핀 주류사회와 쉽게 동화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코란 중심의

10) 최근 필리핀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발릭·이슬람’이라 부른다. 말레이어로 ‘발릭(balik)’은 ‘돌아오다’, ‘회귀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과거 이슬람 신자였지만 스페인의 강요에 의해 가톨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의 발릭·이슬람 신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오부영 2008: 92).

11) 스페인은 본국에서 무어(Moor)족 무슬림에 대항하여 수세기 동안 재정복 전쟁을 벌였다. 따라서 스페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무어의 스페인어 발음인 ‘모로(Moro)’로 불렀다(김동엽 2013: 272).

12) 2014년 3월 10일 국립 필리핀대학교 이슬람 연구소에서 개최된 ‘방사 모로와 민다나오 평화정착을 위한 협정계획 포럼’에서 마라위(Marawi) 출신의 B(69세/남)씨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모로’ 용어 사용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필리핀 무슬림 기성세대들은 ‘모로’가 아닌 ‘술루 이슬람 왕국’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본고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두 영문 이니셜만을 사용하기로 밝힌다.

이슬람 교육이 이슬람 사회의 정신적 정체성을 떠받치는 절대적인 수단이자 핵심요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Arsad 2011: 9),<sup>13)</sup> 서구 식민시대 이후 시행된 서구식 교육은 오히려 필리핀 이슬람 사회에 주류사회를 향한 반발과 정신적 무장만을 강화해주었을 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서구 식민시대의 영향이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구조와 가치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이슬람 교육에 미친 변화의 양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서구 식민시대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가치관과 교육의 변화

스페인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 식민지배는 앞서 형성된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서구 식민지배의 영향 중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요인은 1)스페인의 기독교 선교정책과 2)미국의 서구식 교육제도 도입, 그리고 3)서구 식민정부를 시작으로 필리핀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지역으로의 이주이다. 상기 요인은 스페인 지배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통시적으로 공통된 한 가지 요소를 반영한다. 그것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이슬람 문명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 문명이다. 즉, 서구 기독교 문명은 오래전부터 필리핀 군도에 형성된 이슬람 사회의 가치관과 교육에 변화를 야기한 근본원인인 것이다.

16세기 중반 필리핀을 식민지배하기 시작한 스페인의 목적은 1)정

13) 코란 16장 나훔(An-Nahl) 89절은 “하나님이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하시어 이로 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라 이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요 은혜요 복음이라(최영길 1997: 492).”고 설명한다. 무슬림들에게 코란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코란 중심의 이슬람 교육은 이슬람 사회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절대적 수단인 것이다.

치적으로 필리핀을 스페인의 속국으로 삼아, 2)경제적인 목적을 취하고, 3)기독교(가톨릭)화하려는 것이었다(Saifullah 2008: 58). 특히, 스페인의 필리핀 지배 목적 중 기독교 전파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스페인의 필리핀 총독이었던 웨일러(Weyler, Valeriano)는 “종교(가톨릭)는 루손과 비사야 지역에서 마땅히 이용되어야 할 통치 수단이며,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필요성은 정당화된다.”라고 밝혔다(김성철 2000: 44-45). 이를 위해, 스페인 선교사들은 필리핀 원주민들을 개화시켜 기독교 사상을 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구식 학교를 세웠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스페인이 필리핀에 도착했을 당시 필리핀의 문해율(文解率)이 스페인보다 높았다는 것이다(Woods 2006: 140). 당시 필리핀 각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인도계통의 문자와 더불어 아랍문자를 통한 이슬람 교육은 필리핀에 이미 수준 높은 문화가 창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페인의 기독교 전파는 필리핀의 이슬람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본국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 왔던 스페인에게 있어서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기독교화는 스페인의 굴욕적인 역사를 되돌리는 길이었다. 따라서 스페인은 필리핀 이슬람 지역의 주권을 강취하고, 무슬림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금지했으며, 이들을 향한 기독교화에 주력을 다했다(Gowing 1979: 29-30). 따라서 당시 마닐라까지 세력을 떨쳤던 이슬람 사회는 남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은 민다나오와 술루 지역의 기독교화를 위해 이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강력한 탄압을 가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이슬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이슬람 사원을 파괴했다(Gowing 1979: 29-30). 뿐만 아니라 서구 중심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문화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모로-모로(Moro-moro)’ 연극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항상 귀족으로 묘사되었지만, 무슬림들은 못생기고, 반역자이며, 신용 없는 광신자로 묘사되었

다. 연극의 줄거리는 대부분 스페인에게 패배한 무슬림 지도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내용이었다(Majul 1985: 17-18). 스페인의 군사-문화적 방법을 동원한 기독교화에 많은 무슬림들을 포함한 필리핀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결과 1583년 가톨릭으로 개종한 필리핀인은 십만 명에 불과했지만, 19세기 초에는 천이백만 명으로 늘어났다(Ahmad 2002: 83). 가톨릭 개종자의 급격한 증가는 당시 스페인의 기독교 정책이 필리핀 전체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페인의 무력에 의한 가톨릭 전파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긴장을 촉발했다.

1898년 미서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스페인과 같은 무력지배와 선교정책을 앞세운 식민지 운영은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미국은 복지시설의 공급을 통한 회유정책을 펼쳤다. 이중 미국이 중점을 둔 분야는 교육이었다. 교육을 통해 필리핀 원주민들과 무슬림들을 서구화로 개화시켜 미국편에 서게 하려는 의도였다. 미국의 교육정책에 따라 1901년부터 이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천여 명의 미국인 교사집단(Thomasites)이 필리핀으로 들어왔다(김성철 2000: 77).<sup>14)</sup> 미국은 민다나오와 술루 군도 등 필리핀 이슬람 사회에 교사들을 보내 마을학교(Barangay School)를 세우고 영어를 보급하며, 대중교육을 전파했다(유석춘 1994: 114). 서구식 교육은 이슬람 사회의 전통구조 및 가치관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남녀공학과 돼지고기가 허용되었고, 민주주의가 소개되었다(김성철 2000: 77-78). 이에 따라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ah)의 수는 감소되었고, 이슬람 교육은 서구식 교육에 위축되었다. 1913년 퍼싱(Pershing, John Joseph) 지사는 연설을 통해 미국은 교육을 통해 필리핀 무슬림들을

14) 미국인 교사집단(Thomasite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peacecorpsonline.org/messages/messages/467/2841.html>

개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김성철 2000: 86). 무슬림들을 미개하다고 여기는 그의 연설에는 이슬람 전통과 가치관을 무시하는 미국의 서구중심의 교육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당시 교육정책 담당관이었던 베로우(Barrow, David) 역시 필리핀의 하층계급(무슬림)의 해방과 다 종족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어교육을 강조했다(김성철 2000: 78).

서구화에 반대하는 무슬림들과의 수차례 충돌 이후, 1903년 미국은 이슬람 사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모로프로빈스(Moro Province)’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행정기구를 비롯한 지방경찰이나 학교의 교장직 등 고위직을 장악했다. 계속해서 1916년 존스법안(Jones Act)에 따라 필리핀화가 추진되자 필리핀 북부의 행정체계가 이슬람 지역에 적용되었고, 이슬람 사회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의 서구식 교육은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다. 공립학교의 수가 몇 백으로 급증하고,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으며, 많은 무슬림들이 마닐라와 미국에 장학생으로 보내졌다(김성철 2000: 91). 계속해서 1919년 미국의 공공토지법(The Public Land Act)은 이슬람 사회에 필리핀 중앙정부를 위시한 기독교 사회와의 적대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공토지법에 따라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의 토지 소유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독립이후 필리핀 정부는 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이슬람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켰다(Gowing 1979: 189-191). 기독교인들의 이주는 1950년대 10년 동안 무슬림들의 비중을 단숨에 32%에서 23%로 약 10% 하락시킬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인들의 이주는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이슬람과 기독교간의 문화충돌로 심화되었다(정영국 1993: 38).

스페인의 기독교 정책과 미국의 서구식 교육제도는 필리핀 이슬

람 사회의 구조와 무슬림들의 가치관을 붕괴시켰다. 기독교 사상과 서구식 교육으로 이슬람 형제애가 사라졌고, 가족구조와 남녀관계의 변화로 인해 이슬람의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이 무너졌다. 서구 식민 주의의 결과로 스페인어와 영어가 필리핀의 교육과 매스컴의 공공 연한 전달수단이 되었기(Ernst 2004: 29-30) 때문에 이슬람 교육에서 아랍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서구의 물질 주의와 사치스런 생활방식을 전파함으로써 젊은 무슬림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구식 교육제도는 역사교과서에 스페인에 대항한 필리핀 무슬림들을 해적과 노예상인으로 묘사했고, 무슬림들이 증오하는 동물을 동화책과 교과서에 삽입했다. 따라서 많은 무슬림들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했다(Majul 1985: 25). 무슬림들에게 서구식 교육을 위시한 ‘개화’의 개념은 이 교도(기독교)들의 세계관과 관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보였다. 그리고 군사력을 앞세운 중앙정부의 정책은 무슬림 지도자들의 입지를 잠식하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또한 서구식 제도를 앞세운 중앙정부의 법과 질서가 이슬람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사회적 감정을 상하게 했다(김성철 2000: 85). 이에 따라 이슬람 지도자들은 정부의 서구식 교육을 앞세운 개화정책은 필리핀 무슬림들의 율법과 가치관, 전통을 무시하고 무슬림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의도로 해석했다(서경교 1995: 133).

서구식 교육으로 인하여 이슬람의 전통과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슬람 교육이 위협을 받자 필리핀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결속과 부흥을 찾기 위한 자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자면,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분리운동은 서구화로 인해 붕괴된 이슬람 교육의 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독립 이후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사회를 위한 회유정책으로 이슬람 교육을 주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필리핀 정부를 통

해 이룩된 이슬람 교육의 발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V. 독립이후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마르코스 정부(1965-1986년)때부터이다. 독립이후 필리핀 정부는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이슬람 사회를 반정부세력으로 낙인찍고 박해와 진압을 가했다. 하지만 무력진압에 효과가 없자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사회의 분리주의 운동이 무슬림들의 정치·경제적 주변화로 인한 소외감과 좌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경제개발에 중점을 맞춘 계획을 시도해 나갔다. 이슬람 지역의 빈곤과 저발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필리핀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슬람 사회의 교육지원과 무슬림 인재를 등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적으로 이슬람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교와 연구소를 설립하여 무슬림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했으며, 교육정책에 관한 분권화를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에 이슬람의 내용과 가치를 포함시키는 길을 열었다(김동엽 2013: 289). 마르코스 정부를 시작으로 필리핀 정부가 이룩한 이슬람 교육 분야의 발전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마드라사(Madrasah)의 정부 인가

필리핀 ‘무슬림부(Ministry of Muslim Affairs)’는 1981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이슬람 사무국(OCIA, Office of the Commission for Islamic Affairs)’을 통해 조직되었다. 무슬림부의 설립은 필리핀 정부가 무슬림들의 신앙과 관습, 전통, 제도 등을 존중하여 이들을 필



리핀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김성철 2000: 160). 무슬림부의 성과 중 하나는 1982년 5월 24-26일 서부 민다나오 국립 대학교(Western Mindanao State University)에서 개최된 ‘필리핀 전국 마드라사 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교육부의 마드라사 인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Saifullah 2008: 65). 이슬람 사회에서 마드라사는 단순히 이슬람의 가치와 전통을 가르치는 학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마드라사는 이슬람 세계관을 보존하고 지탱하는 이슬람의 정신적 원천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스페인 지배 이후 정부의 인가 없이 운영되어온 마드라사가 마르코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필리핀 이슬람 교육에 성장의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드라사의 인가와 함께 이슬람 교육기관에서의 아랍어 사용이 허락되었다.

## 2. 이슬람 연구소 개설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연구기관을 설치해 이슬람 제반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허용했다. 1973년 12월 22일 대통령령 342호에 따라 국립 필리핀대학교 내부에 ‘이슬람 연구소(IIS, Institute of Islamic Studies)’가 문을 열었다.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이슬람 학문 발전을 통해 이슬람 사회와 타 사회 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필리핀 문화의 일부분인 이슬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Saifullah 2008: 66). 1974년 이슬람 연구소는 아랍어와 이슬람 역사 및 필리핀 이슬람 제반분야의 학사과정을 개설했다. 계속해서 1975년에는 정부장학금 제도를 두었고, 1980년에는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이슬람 연구소는 필리핀 무슬림들에게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앙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1973년 민다나오 국립대학교에 설립된 ‘킹파이살 이슬람-아랍어문학연구센터(King Faisal Center for Islamic and Arabic Studies)’는 필리핀 정부가 최초로 운영하는 이슬람 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실제 본 연구소는 ‘아시아-이슬람 연구센터(Institute of Asian and Islamic Studies)’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지만,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소의 이름을 개칭하였다(Saifullah 2008: 66). 연구소는 필리핀의 이슬람 지역과 타 지역 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무슬림들을 성숙한 필리핀 국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Saifullah 2008: 67). 연구소는 학부과정에서 아랍어와 필리핀 이슬람 및 이슬람 세계의 국제관계 등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에서는 필리핀 이슬람 전통법 및 율법에 대한 수업을 개설했다. 또한 이슬람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드라사와 일반학교의 아랍어 교사를 위한 아랍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필리핀 전국 마드라사 회담을 주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필리핀 샤리아(Shari'ah) 기관과 협력하여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이슬람 교육 회담 및 행사 개최

마르코스 정부의 이슬람 교육에서 이룬 괄목할 성과는 이슬람 교육의 첫 공식회담 개최이다. 1980년 10월 27-31일 민다나오 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필리핀 이슬람 교육 회담’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회담의 첫 관문을 열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Madale 1988: 359-360). 당시 회담에서 마나로스(Manaros, Boransing) 교수는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을 위해 6가지 제언을 했다. 그의 제언은 1)공교육에 삽입할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의 통합커리큘럼 개

발, 2)이슬람 교육의 증진을 위해 마드라사의 중등학교로의 재편성, 3)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표준교과서 편찬, 4)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교사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 개설, 5)이슬람 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인기관 설립, 그리고 6)필리핀 무슬림들이 비-이슬람 학교에서도 학업을 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 마련이다(Saifullah 2008: 69). 회담에 참석한 학자들은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미래는 이슬람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육을 통해 외부 사회와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뜻을 같이했다.

‘필리핀 이슬람 교육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필리핀 전국 마드라사 회담’으로 이어졌다(Madale 1988: 358-359). 본 회담은 1982년 3월 31일 대통령령 1221호에 준하여 같은 해 5월 24-26일 서부 민다나오 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필리핀 교육계에서 마드라사를 비중 있는 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론되었다. 특히, 아흐맛(Ahmad, Hassoubah) 교수는 마드라사의 정부 인가를 위해서는 아랍어 교사의 자질, 아랍어 및 이슬람 가치관 표준 교과서 편찬, 그리고 마드라사 졸업생들의 국립대학교 입학허가를 강조했다(Saifullah 2008: 70). 상기 두 회담을 통해 전달된 학자들의 의견은 이후 마드라사 통합교육의 시행을 위한 청사진이 되었다. 이외에도 필리핀 정부는 1977년 이슬람 사무국의 주최로 ‘전국코란낭독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1981년 무슬림부의 조직과 함께 코란낭독대회는 필리핀 전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슬람 행사가 되었다(Saifullah 2008: 70).

독립이후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 이유는 국가통합정책과 맞물린 필리핀의 교육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2년에 제정된 교육법안 2조 3항은 “각 주는 각 지역사회가 그들의 문화, 관습, 전통, 관심 그리고 믿음의 상이한 배경 안에서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수행 및 장려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 국가 발전 및 통합에 있어서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sup>15)</sup> 교육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슬람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은 국가통합정책에 무슬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교육의 발전을 통한 필리핀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오히려 필리핀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슬람 교육의 목표는 아랍어 및 이슬람 교리의 습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김동엽 2013: 289; Milligan 2006: 424-428). 이슬람 교육은 절대 신의 말씀인 코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고, 이는 무슬림들에게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인지하는 틀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즉, 필리핀 정부는 국가와 종교를 구분하지만 이를 통합된 요소로 간주하는 이슬람 교리는 필리핀 무슬림들로 하여금 필리핀 사회를 가톨릭과 이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하도록 만들었다(김동엽 2013: 290; Milligan 2003: 487-488).

또한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교육의 발전을 통해 무슬림들이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필리핀 주류사회의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교육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김동엽 2013: 290; Milligan 2006: 439). 이러한 현실은 가톨릭과 이슬람 간의 국민적 연대의식보다는 상호 차이점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마드라사의 인기는 이슬람 교육의 분권화로 이어졌고, 이슬람 교리의 급진주의적 해석이나 보수적 성향을 강화시켜 분리주의 운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국가통합정책이라는 중대한 과제수행

15) “The State shall promote the right of the nation's cultural communitie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 to develop themselve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cultures, customs, traditions, interest and belief, and recognizes education as an instrument for their maximum participation in national development and in ensuring their involvement in achieving national unity.”

<http://www.slideshare.net/jaredram55/batas-pambansa-blg-232-education-act-of-1982>

을 위해 이슬람 사회를 수용하려는 방편에서 이루어진 이슬람 교육은 이슬람 사회의 강권화만 불러온 것이다. 국립 필리핀대학교 이슬람 연구소 석사과정의 학생대표 U(28세/남)씨는 이슬람 교육은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단결을 위한 절대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1982년 마르코스 정부의 마드라사 인가와 2004년 아로요 정부의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필리핀 사회에 이슬람 교육을 공공화한 긍정적인 정부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의견에는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난해한 문제가 감추어져있다. 첫째, 필리핀 정부의 이슬람 교육의 발전은 국가통합정책에 기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 교육은 U씨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이슬람 사회의 단결을 불러왔다. 둘째, 이슬람 교육의 발전은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와 종속관계에 놓여있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화 실천의 한계를 보여준다. 양립될 수 없는 상이한 문제 가운데 2004년 시행된 마드라사 통합교육의 현황과 제반문제들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V. 마드라사(Madrasah) 통합교육의 현황과 제반문제

필리핀 교육부는 2015년까지 필리핀 전 지역의 취학률을 100%로 올린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다(Arsad 2011: 18). 이러한 취지에는 이슬람 사회를 염두에 둔 필리핀의 국가통합정책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그 동안 이슬람 사회의 취학률은 필리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sup>16)</sup> 더군다나 이슬람 사회의 다수 교육기관인 마드라사는

16)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의 2011년 취학률은 초등학교가 65.8%(필리핀 평균 91.2%), 중등학교가 33.1%(필리핀

교육부의 기초교육커리큘럼(Basic Education Curriculum)에 해당하는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무시한 채 이슬람 교육만을 강조해 왔다. 이슬람 교육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필리핀 국민의식을 심어주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가통합정책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사회 간의 유혈투쟁이 지속되는 동안 마드라사가 이슬람 부흥운동자를 양산하고 국가의 정치·경제를 위협하는 본거지로 주목받아왔다는 사실(Arsad 2011: 10)은 이슬람 교육을 공교육 안에 두고 관리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1982년 마드라사 교육을 인가했지만, 그 보다 앞선 1979년 7월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과의 이슬람 자치구 결정을 앞둔 투표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자 이슬람 자치구의 교육 분야를 대통령 권한 아래에 두었다(Neher 1980: 159-160). 이러한 사실은 마드라사의 인가는 이슬람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어온 마드라사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이었지, 이슬람 교육 자체를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이슬람 사회의 교육을 정부 권한아래에 둔 것은 이슬람 사회의 단결을 가중시키는 이슬람 사상의 원천인 이슬람 교육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를 향한 정부의 강경정책이 회유정책으로 변모함에 따라 1995년 12월 라모스 정부는 모로민족해방전선과(MNLF)의 제3차 평화협상에서 사법권과 이슬람법원 그리고 이슬람 교육을 허가해 주었다(유왕중 1999: 115).

2001년 9·11사건 이후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사회가 정부에 더욱 강경히 대항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사회에 대해 이들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달래주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의 관심을 받아온 이슬람 교육을 봉

---

군 62.0%)로 필리핀 전체 평균에 크게 뒤쳐져있는 실정이다(이충열 외 2014: 160).

쇄해야하는 실제로 여기는 것보다, 공교육에 삼입하여 이슬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관할아래 두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아래 2004년 아로요 정부는 마르코스 정부 이후 논의되어 온 마드라사 통합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4년 교육부는 교육부령 51호를 발령하여 이슬람 사회 내 초등공립학교에는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을 삼입하고, 사립 마드라사에는 기초교육커리큘럼의 교과목을 개설토록 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역시 지방정부명령 13-A를 발령하여 통합교육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1. 마드라사(Madrasah) 통합교육 내용

그 동안 필리핀의 학제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 6년과 이후 중등교육 4년으로 시행되었으나, 교육제도 개혁에 따라 2011년 6월부터 중등교육에 상급과정 2년이 추가되어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6년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sup>17)</sup> 중등교육에는 중국계 필리핀인들을 위한 중국인 학교와 무슬림들을 위한 이슬람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중국인 학교에서는 기초교육커리큘럼 교과목 이외에 중국어문학과 중국역사문화수업이 이루어진다. 한편,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는 이슬람 사원 또는 성직자의 집에서 기초교육커리큘럼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이슬람 교과목만을 제공해 왔다 (Moulton 2008: 2). 하지만 2004년 교육부령 51호 ‘초등공립학교와 사립 마다리스를 위한 표준커리큘럼(Standard Curriculum for Elementary Public Schools and Private Madaris)’ 시행에 따라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사립 마드라사에는 일반교육이 삼입 되었으며,

17) 필리핀의 학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the\\_Philippines](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the_Philippines)

초등공립학교에는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삽입되었다. 이에 따른 교과목의 변동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공교육과 이슬람 교육의 통합에 따른 교과목의 변동<sup>18)</sup>

	초등공립학교	사립 마드라사(Madrasah)
기존의 교과목	기초교육커리큘럼 (Basic Education Curriculum)	코란(Al-Qur'an) 아퀴다(Aqidah, 이슬람교의) 피키(Fiqh, 이슬람율법) 수라(Surah, 코란 말씀) 하디스(Hadith, 무함마드 언행록) 아랍어
추가된 교과목	아랍어(매일 60분) 이슬람 가치관(매일 40분) * 무슬림 자치구 외부의 무슬림 다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매주 토요일 4시간 동안 시행	영어 수학 과학 필리핀어 마카바얀(Makabayan)

출처: (Arsad 2011: 24)를 참고하여 작성

기존의 마드라사는 통일된 커리큘럼 없이 교사의 재량에 의해 이슬람 교과목 수업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1)졸업 후, 경제적 활동을 위한 현실적 지식공급의 부재, 2)시대에 동떨어진 종교텍스트 중심의 교육, 3)교사와 학생을 위한 공인된 평가의 부재(Arsad 2011: 11) 등의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통해 무슬림 학생들은 현실적 지식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사와 학생들은 공인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립학교의 무슬림 학생들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마드라사를 방문하지 않고, 학교에서 매일 아랍어

18) 사립 마드라사에 추가된 과목 중 마카바얀(Makabayan)은 필리핀 애국·윤리 교과목이다.



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 마드라사 통합교육에 대한 이슬람 사회의 입장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이슬람 사회 각계각층의 상이한 의견대립을 낳았다. 의견대립은 크게 1)무슬림 학자와 교사로 이루어진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층과 2)무슬림 학생과 학부모로 이루어진 통합교육의 직접적 수혜자 간에 발생했다. 먼저, 무슬림 학자들과 교사들은 통합교육을 필리핀 무슬림 사회를 위한 이슬람화의 기반으로 기대하고 이슬람 교과목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의 의도는 이슬람 교육의 순수화를 통해 이슬람 사회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무슬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반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들의 입장은 이슬람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슬람 교육은 무슬림들의 현실적 생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반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대립은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오랜 시간 중앙정부와 복잡한 갈등을 빚어왔던 것처럼 이들 사회의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상이한 입장이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1) 무슬림 학자(Ulama) 및 교사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층인 무슬림 학자들은 마드라사 통합교육을 필리핀 이슬람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기대했다. 따라서 이들은 교사들의 아랍어 능력과 이슬람 지식의 자질 여부, 이슬람 교과목의 중요성, 그리고 무슬림 학자들의 자문을 강조했다(Arsad 2011: 94).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자신들을 이슬람 교육의 지문위원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교육에 강한 불신을 나타

냈다(Arsad 2011: 76). 이들은 통합교육에 따른 이슬람 교육의 세속화 또한 우려했다. 마닐라 퀴아포(Quiapo)에 위치한 ‘골든(Golden) 모스크’에서 만난 무슬림 학자 A(62세/남)씨는 무슬림 학생들과 비-무슬림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무슬림 학생들의 세속화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창조론에 위배되는 생물 및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을 비-무슬림 교사로부터 교육받는 것은 신세대 무슬림들의 이슬람 사고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무슬림 학자들의 주장은 기존의 사립 마드라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슬람 교육의 순수화였다. 많은 종족으로 분열되어 있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 부흥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다양성을 극복하고 보편성의 강조를 통해 하나의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슬람 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동엽 2013: 267-268). 무슬림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어와 이슬람 교과목 교사들 역시 이슬람 수업의 비중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슬람 사상에 위배되는 비-이슬람 교과목의 내용과 공립학교 비-무슬림 교사들의 부족한 이슬람 지식을 우려했다(Arsad 2011: 65). 하지만 모든 교사들이 비-이슬람 교과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타귀(Taguig) 지역의 ‘팡안담안(Pangandaman) 마드라사’의 아랍어 교사인 N(52세/여)씨는 많은 수의 필리핀 무슬림들이 구직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무슬림 학생들에게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일반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통 마드라사에 출석하는 무슬림 학생의 수는 상급레벨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Arsad 2011: 82). 이러한 이유에 대해 N씨는 고학년 무슬림 학생들은 졸업 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반교육의 중요성과 필리핀 사회의 구직현실을 자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들과 교사들은 이슬람 교육의 순수화를 주장하며 기존의 사립 마드라사를 옹호하였지만, 일부 극히 소수의 무슬림 교사들

은 일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 (2) 무슬림 학생 및 학부모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 학생들은 정부의 기초교육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실용교과목의 수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Arsad 2011: 54-57). 무슬림 학생들이 실용교과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의 경제적 빈곤과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필리핀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이충열 외 2014: 144). 이러한 이유는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이슬람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을 선택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슬람 교육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이슬람의 정신적 강화만을 심어주지만, 실용교과목 중심의 교육은 빈곤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필리핀대학교 이슬람 연구소의 석사과정생인 S(28세 /남)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필리핀의 젊은 무슬림들이 처한 현실을 대표하고 있다. 잠보앙가 출신인 그는 어릴 때 전통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민다나오 국립대학교 이슬람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는 그의 미래에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대학교 졸업 후 마닐라에 상경했을 때 무참히 깨졌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은행 입사지원에서 거절당한 것이었다. 일자리가 없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보다 마닐라에 머무르는 것이 나왔던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국립 필리핀대학교의 이슬람 연구소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필리핀에서의 이슬람 교육은 무슬림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했다. 졸업 후 사회활동을 경험해 본 마드라사 학생들은 이슬람 학자들과는 달리 이슬람과 현실세계를 분리하여 바라봤다. 이들에게는 당장의 생계와 젊은이로서의 비전과 꿈이 중요했다.

실용교과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무슬림 학생들의 의견은 학부모들의 교육관이 자녀들에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사상과 현실세계를 구분하고자 했다. 즉, 이들은 기성세대들의 빈곤이 다음세대 무슬림들에게 넘겨지지 않기를 원했고, 현재로서는 통합교육을 통한 일반교육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기존의 이슬람에 치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교육을 받기 원했다(Arsad 2011: 36). 학부모들은 이슬람 교육과 동시에 정부의 기초교육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과목도 교육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를 선호했다. 또한 이전에 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이슬람 교육을 위해 전통 마드라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통합교육이 시행되어 주말에 더 이상 마드라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을 지지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된 것도 학부모들의 지지를 불러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부분은 무슬림 자녀들이 실용교과목의 교육을 받게 된 점이었다.

### 3. 마드라사 통합교육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

#### (1) 이슬람 교과목 커리큘럼 및 교과서의 부재

마드라사 통합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합교육에 대한 적절한 커리큘럼과 이슬람 교과목에 대한 공인된 교과서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Arsad 2011: 80-81). 지금까지 전통 마드라사는 이슬람 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졌다. 아랍의 이슬람 국가에서 유학한 교사들은 졸업한 학교의 커리큘럼을 필리핀 마드라사에 그대로 적용했다. 필리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아랍 이슬람 국가의 커리큘럼을 통합교육 이슬람 교과목에 적용하지 않으리라

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통일된 교과서 없이 교사의 재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슬람 수업은 이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공식적 평가의 부재와도 연결된다. 공식 커리큘럼과 교과서 없이 진행되는 이슬람 교과목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평가를 수행할지 의문이 든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열악한 교육시설이다(Arsad 2011: 64-65).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에 위치한 많은 수의 마드라사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과 호주를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마드라사의 보수를 위한 원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타 지역의 마드라사이다. 민다나오 외부 지역의 마드라사는 서방국가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웠다.

마닐라의 무슬림 커뮤니티 타귀(Taguig)에 위치한 ‘팡안담안(Pangandaman) 마드라사’는 이슬람 사원의 한 공간을 빌려 운영되고 있었다. 이슬람 사원은 건축비 부족으로 완공되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수업이 어려웠다. 이곳에서는 한 명의 학교장과 네 명의 교사가 무슬림 학생 50여 명에게 아랍어와 이슬람 교과목 등을 가르쳤다. 학교장인 M(56세/여)씨는 교육부에 통합교육 신청을 했지만 1년 가까이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통합교육의 시급한 문제로 이슬람 교과목의 통일된 교재와 커리큘럼의 부재를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오래전에 마드라사를 인가했고 최근에는 통합교육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슬람 교과목의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슬람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이와 덧붙여 기성세대 무슬림들은 체계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문제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이슬람 교과목의 교재와 커리큘럼이 없는 통합교육은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공식 평가기준이 없이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장인 그녀는 이슬람 교과목의 커리큘럼과 교과서 제작 없이 통

합교육을 시행한 정부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2) 낙후된 마드라사 시설과 서방국가의 지원

그 동안 필리핀 이슬람 사회를 위한 아랍 및 인근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이 있어왔지만 실제 이들의 지원은 정치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왔다. 더욱이 1977년 이슬람협력기구(OIC)가 모로민족해방전선(MNLF)에게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문제는 필리핀 정부의 주도하에 해결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김성철 2000: 206), 그나마 그 동안 있어왔던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과 관심도 줄어들게 되었다. 많은 수의 마드라사가 처한 낙후된 시설과 기반시설의 부족은 역설적이게도 이슬람 통합교육에 서양 기독교 국가의 개입을 불러왔다. 근래에 들어와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통합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서방국가는 미국과 호주였다. 미국국제개발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통합교육 발전을 위해 마드라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Moulton 2008: 15). 이와 더불어 호주국제개발청(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또한 '민다나오기초교육지원(Basic Education Assistance for Mindanao)'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에 있는 154개 마드라사를 지원해 주었다.<sup>19)</sup> 이들의 지원은 주로 낙후된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직원들을 위한 교수법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으로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정비와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Arsad 2011: 21). 서방국가의 지원이 통합교육의 실행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무슬림 기성세대들은

19)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홈페이지 참조 (<http://aid.dfat.gov.au/countries/eastasia/philippines/Documents/be-beam-armm-newsletter-ipm.pdf>).

지난 날 서구 식민시대의 기억과 함께 무슬림 어린이들의 세속화에 대한 노출을 우려했다.

국립 필리핀대학교 이슬람 연구소의 아르삿(Arsad, Nefertari) 교수는 통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가 필리핀의 이슬람 교육에 서방국가의 개입을 불러왔고, 기독교 국가에 메인 종속적 관계를 다시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방국가의 지원을 받는 마드라사의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서방국가로의 유학이 무슬림 학생들의 세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16년 존스법안(Jones Act) 입법과 함께 필리핀화를 추진하여 많은 무슬림들을 마닐라와 미국으로 유학 보내 개화시켰던 미국의 정책이 재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설적으로 아르삿 교수는 통합교육 시행을 위해 필리핀의 자체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난한 필리핀 정부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과 호주의 원조를 사양하고 이슬람 사회에 자체적인 지원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삿 교수는 필리핀 이슬람 사회는 서구 식민시대 이후 지금까지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취학률 하락

통합교육 시행으로 공립학교에서도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취학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통합교육 시행 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2011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통합교육 시행 전인 2002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2002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2.7%였지만 통합교육이 시작된 9년 후 2011년에는 65.8%로 떨어졌다. 중등학교 취학률은 2002년 23.7%에서 2011년 33.1%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기라도 하듯 필리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 전체평균인 약 0.61에도 훨씬 못 미치는 0.40대를 가리키고 있다(이충열 외 2014: 159-161). 이슬람 사회 취학률의 하락에 대해 국립 필리핀대학교 이슬람 연구소의 아르삿(Arsad) 교수는 필리핀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아르삿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통합교육 시행에 앞서 지역의 전반적 인프라 시설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반시설 및 제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의 대부분 학교는 낙후되어 있고 공인된 교사들의 수도 부족한 상태이다.<sup>20)</sup> 또한 통합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과서의 부재로 인한 이슬람 사회의 정부에 대한 의심이 이슬람 사회의 교육 분위기에 부정적 분위기를 조장하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의 일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도 하나의 원인이다. 아르삿 교수는 무슬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을 통한 일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했다. 이슬람 사회의 농촌과 외지에 거주하는 무슬림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전통 마드라사에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은 필리핀의 전체 이슬람 사회가 일반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이충열 외 2014: 162) 동시에 통합교육을 시행할 기반을 갖춘 교육시설이 농촌과 외지에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무슬림 학생들과 학부모들 간에 통합교육을 통한 일반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민다나오 취학률은 머지않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지방정부는 2,649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충열 외 2014: 162).



#### 4. 마드라사 통합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입장과 의도

기본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일반 학생과 무슬림 학생의 교육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Arsad 2011: 91). 통합교육 정책입안자들은 이슬람 사회의 전통 마드라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전통 마드라사는 분리주의자를 양성하는 본거지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통해 무슬림들을 성숙한 국민으로 개도하여 필리핀의 국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rsad 2011: 19-20).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드라사 통합교육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필리핀 정부의 회유정책에 따라 이슬람 사회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필리핀 주류사회에 우선시된 국가통합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슬람 교육은 이슬람 사회의 정신적 무장만을 강화해주지만, 통합교육은 무슬림들의 현실적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Arsad 2011: 20)에는 통합교육을 통해 이슬람 교육을 통제하는 동시에 일반교육을 통해 무슬림들을 필리핀의 주류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필리핀 정부의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이슬람 교육을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덧붙여 통합교육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과목의 커리큘럼과 교과서의 여전히 부재는 이슬람 사회를 향한 필리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무슬림들의 부정적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이슬람 사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원조는 기독교 국가의 원조와 이슬람 교육의 발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불협화음적인 관계를 낳았다. 통합교육의 시행으로 공립 학교에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삽입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성으로 결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식민시대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스페인의 기독교화 및 미국의 서구화에 뒷받침 된 필리핀화, 그리고 이를 이은 필리핀 정부의 기독교 주류사회를 우선시한 국가통합정책을 주목한다면, 마드라사 통합교육 시행에 담긴 필리핀 정부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

## VI. 마무리

지금까지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마드라사 통합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필리핀 정부는 주류사회와는 이질적인 자국 내 이슬람 사회에 대해 강경정책을 폈었다. 중앙정부의 강경정책은 무슬림들에게 유혈투쟁을 앞세운 역효과만을 불러왔다. 따라서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부를 시작으로 회유정책을 통한 이슬람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및 경제개발에 집중했다. 이 중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사회를 수용하고 무슬림들을 주류사회로 나아오게 할 방편으로 이슬람 교육의 발전에 주목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마드라사 통합교육이 시행되었다. 통합교육의 시행으로 무슬림 사회의 공립초등학교에는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삽입되었고, 마드라사에는 정부 기초교육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영어, 수학, 과학, 필리핀어와 마카바얀 과목이 삽입되었다. 통합교육은 이슬람 사회각계의 상이한 입장을 불러왔다. 먼저, 무슬림 학자들은 통합교육을 이슬람화의 수단으로 삼고자했다. 이들은 공립학교의 이슬람 가치관 관련 수업을 늘리고 이에 대한 커리큘럼 작성과 교과서 편찬에 무슬림 학자들이 자문위원으로 등용되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슬람 교과목보다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일반과목의 교육을 강조했다. 한편, 통합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이슬람 교과목의 커리큘럼과 통일된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많은 수의 낙후된 마드라사는 통합교육 시행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이슬람 교육에 미국과 호주 등 기독교 국가의 원조를 불러왔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이후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의 취학률은 오히려 하락되었다.

그 동안 필리핀에서 이슬람 교육은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기독교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게 하는 위험요소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스페인과 미국이 기독교화와 서구화를 앞세워 이슬람 사회를 끊임없이 주류사회에 통합시키려했던 이유였으며, 뒤를 이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통합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마드라사 통합교육의 초안은 1980년대 마르코스 정부가 이슬람 사회를 수용하여 필리핀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개최한 ‘필리핀 이슬람 교육 및 전국 마드라사 회담’을 통해 마련되었다. 당시 회담의 목적이 이슬람 사회의 외부와의 소통이었다는 사실만 주목하더라도 통합교육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통합을 지향하는 필리핀 정부입장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하는 이슬람 교육의 통제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테두리에 묶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통합교육의 실태를 필리핀 교육법안 2조 3항(필리핀 각 지역사회의 상이한 문화, 전통 및 믿음을 중시)에 비추어보면, 이슬람 교과목의 커리큘럼과 교과서의 부재는 통합교육이 이슬람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필리핀의 주류사회가 기독교 사회였다는 사실은 필리핀 정부가 마드라사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원조를 규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서방국가의 원조는 이슬람 교육을 약화시켜 무슬림들을 주류사회로 나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많은 수의 무슬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슬람 교육에 대한 가치의 하락과 동시에 통합교육에 대한 취학률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

다. 현재까지의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 상황을 종합해보면 필리핀의 이슬람 교육은 서구 식민시대 이후 줄곧 기독교 주류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 구조 안에 갇혀왔다는 결론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필리핀 이슬람 사회에서 순수한 이슬람화의 실천에 기인한 이슬람 교육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다.

현재 필리핀 이슬람 사회는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이슬람 교육은 기독교 주류사회에서 필리핀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정신적 힘의 원천이었지만 오늘날의 젊은 무슬림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이다. 이들에게는 이슬람 교육보다, 또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필리핀 사회의 국민으로서 당장 책임져야 할 생계와 젊은이로서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이슬람 사회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서구화와 현대화는 젊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교육의 가치와 이들이 직면한 빈곤한 현실 간의 무게를 재어보도록 재촉하는 중이다. 필리핀의 국가통합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란 소수의 무슬림 학생들이 서구식 교육을 받은 다수의 학생들과 연합하여 통일된 필리핀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역으로 무슬림 지도자들의 기대와 같이 마드라사 통합교육이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미래인 젊은 무슬림들의 이슬람 가치관을 더욱 강화시켜 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급변하는 세계화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시대의 세속화가 필리핀의 젊은 무슬림들의 가치관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찾아봐야 한다. 필리핀의 젊은 무슬림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비단 필리핀 이슬람 사회뿐만이 아닌 전 세계 이슬람 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제어:** 이슬람 교육, 필리핀 무슬림 사회, 마드라사 통합교육, 필리핀 이슬람화

〈참고문헌〉

- 김동엽. 2013. “필리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 이슬람 부흥운동의 맥락에서.” 『동아연구』 32(2): 263-300.
- 김성철. 2000. 『필리핀 무슬림』. 전북: 전주대학교 출판부.
- 서경교. 1995. “필리핀 무슬림의 분리주의 운동: 변화와 연속.” 『동남아연구』 4: 121-156.
- 오부영. 2008. “필리핀 이슬람 개종자 발탁-이슬람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2): 87-110.
- 유석춘. 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3: 91-126.
- 유왕중. 1999. “필리핀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9(1): 105-120.
- 이충열·방인성. 2014. “필리핀 방사모로 이슬람 자치지역의 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동남아시아연구』 24(1): 133-190.
- 정영국. 1993.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지역연구』 2(4): 31-55.
- 최영길. 1997.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 Ahmad, Wan D.S. 2002. *Minoriti Muslim di Filipina*. Selangor: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Al-Attas, Syed Muhammad Naquib. 1989. *Faces of Islam: Conversation on Contemporary Issues*. Kuala Lumpur: Berita Publishing.
- Arsad, Nefertari A. 2011.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Bangkok: Asian Muslim Action Network.
- Batas Pambansa 232. "An Act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and

- Maintenance of an Integrated System of Education." <http://www.slideshare.net/jaredram55/batas-pambansa-blg-232-education-act-of-1982> (검색일: 2014.10.15)
- Cho, Taeyoung. 2012. *Aksara Serang dan Perkembangan Tamadun Islam di Sulawesi Selatan*. Yogyakarta: Penerbit Ombak.
- Collins, James T. 1998. *Malay World Language: A Short History*.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4. "Basic Education Assistance for Mindanao." <http://aid.dfat.gov.au/countries/eastasia/philippines/Documents/be-beam-armm-newsletter-ipm.pdf> (검색일: 2014.09.21)
- Ernst, Carl W. 2004. *Following Muhammad: Rethinking Islam in the Contemporary World*.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aruqi, Ismail. 1982. *Islamization of Knowledge: General Principles and Work Plan*. Herndon, VA: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 Gowing, Peter Gordon. 1979. *Muslim Filipinos: Heritage and Horizon*. Quezon City: New Day.
- Madale, Nagasura T. 1988. "Kebangkitan Kembali Islam dan Nasionalisme di Filipina." Taufik, Abdullah dan Sharon, Siddique (eds.), *Tradisi dan Kebangkitan Islam di Asia Tenggara*. Jakarta: Penerbit LP3ES.
- Majul, Cesar Adib. 1985. *The Contemporary Muslim Movement in the Philippines*. Berkeley: Mizan Press.
- Milligan, Jeffrey Ayala. 2003. "Teaching between the cross and the Crescent Moon: Islamic Identity, Postcoloniality, and Public

- Education in the Southern Philippin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7(4): 468-492.
- Milligan, Jeffrey Ayala. 2006. "Reclaiming an Ideal: The Islamization of Education in the Southern Philippin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0(3): 410-430.
- Mohamad, Abu Bakar. 1991. "External Influences on Contemporary Islamic Resurgence in Malay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3(2): 220-228.
- Moulton, Jeanne. 2008. *Madrasah Education: What Creative Associates has learned*. Washington: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2014. "The Muslim Ethnic Groups." <http://www.ncca.gov.ph/about-culture-and-arts/articles-on-c-n-a/article.php?i=232&igm=4> (검색일: 2015.01.29)
- Neher, Clark. 1980. "The Philippines 1979: Cracks in the Fortress." *Asian Survey* 20(2): 155-167.
- Niyozov, Sarfaroz and Memon, Nadeem. 2011. "Islamic Education and Islamization: Evolution of Themes, Continuities and New Direction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1(1): 5-30.
- Othman, Mohd Yatim and Abdul, Halim Nasir. 1990. *Epigrafi Islam Terawal di Nusantar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Returned Peace Corps Volunteers (RPCV). "Thomasites." <http://peacecorpsonline.org/messages/messages/467/2841.html> (검색일: 2015.01.29)
- Rosli, Saludin Mohd and Fazil, bin Ajak Mohd. 2011. *Menjana Transformasi Etnik Suluk*. Kuala Lumpur: Crescent News.

- Saifullah, SA. 2008. "Umat Islam di Filipina Selatan: Sejarah, Perjuangan dan Rekonsiliasi." *ISLAMICA* 3(1): 54-75.
- Simons, Gary F. 2014. *Ethnologue Languages of Asia (Seventeenth Edi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 Suhrke, Astri and Noble, Lela Garner. 1977. *Ethnic Conflict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Wikipedia.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the\\_Philippines](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the_Philippines) (검색일: 2015.02.02)
- \_\_\_\_\_. "Freedom of Religion in the Philippines." [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religion\\_in\\_the\\_Philippines](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religion_in_the_Philippines) (검색일: 2014.10.03)
- \_\_\_\_\_. "Philippines." <http://en.wikipedia.org/wiki/Philippines#Religion> (검색일: 2014.10.01)
- Woods, Damon L. 2006. *The Philippines: a global studies handbook*. ABC-CLIO.

(2014.11.27투고, 2015.01.29심사, 2015.02.09게재확정)



<국문초록>

## 필리핀의 이슬람화: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마드라사(Madrasah) 통합교육

조 태 영  
(한국동남아연구소)

본고는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2004년에 시행된 마드라사 통합교육의 현황을 통하여 필리핀 이슬람화의 상황을 조명한다. 서구 식민지배 이후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마드라사는 정부의 인가 없이 사설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2004년에 이루어진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이슬람 사회를 향한 필리핀 정부의 회유정책과 관련하여 1982년에 이루어진 마드라사의 인가에 따라 시행되었다. 마드라사 통합교육에 따라 공립학교에는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삽입되었으며, 사설 마드라사에는 정부의 기초교육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과목이 개설되었다. 무슬림 학자들은 마드라사 통합교육을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화의 강화를 위한 기회로 여겼다. 따라서 이들은 이슬람 과목 및 교과서 제작에 자신들이 자문위원으로 등용되기를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은 무슬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세속과목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취학률의 하락과 이슬람 과목의 공식 커리큘럼 및 교과서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많은 수의 마드라사가 미국과 호주와 같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원조를 받

게 된 것은 무슬림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슬람 교육의 세속화를 우려하도록 했다.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화와 관련하여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다음의 문제들이 지적된다. 첫째,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의 수업이 공교육에 삽입된 것은 이슬람 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이슬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국가통합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둘째, 이슬람 과목의 커리큘럼과 교과서의 부재는 마드라사 통합교육을 시행한 필리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교육과 관련하여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화의 실천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통합정책에 의존되어 있으며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주제어:** 이슬람 교육, 필리핀 무슬림 사회, 마드라사 통합교육, 필리핀 이슬람화

<Abstract>

Islamization in the Philippines:  
The Development of Islamic and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CHO Tae Young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Islamization of the Philippines in the development of Islamic education, and more specifically in the issues of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implemented in 2004. The *Madaris* of the Philippines have been privately governed in the Muslim community since Western colonization. More recently, however,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was implemented in 2004 as a successive outcome of legislation about *Madrasah* in 1982 according to the Philippine governments'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Muslim community. Thus, Islamic subjects of Arabic language and Islamic values were integrated into the public schools and the secular subjects of the Basic Education Curriculum into the private *Madaris*. Muslim scholars regarded the integration as a chance to secure Islamization and emphasized their desire to play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curriculum for Islamic subjects and textbooks. On the other hand, parents and students insisted that secular academic skills should be prioritized to prepare Muslim learners for the future. However, the integrated educa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resulted in such problems as decreased school attendance rates and a complete absence of Islamic curriculum and textbooks. In particular, a large number of substandard *Madaris* supported by America and Australia caused tensions with Muslim leaders concerning the secularization of Islamic education. The following issues regarding Islamization in the Philippine education sector are impacted by the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Firstly, inserting Arabic language and Islamic values into the public schools is not being accomplished by the Muslim community itself, but rather by the 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Philippine government, which desires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Muslim community. Secondly, the absence of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Islamic subjects raises suspicion over the Philippine governments' purposes for implementing the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Consequently, Islamization of the education sector in the Philippine Muslim community is limited and dependent on the n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Islamic Education, The Philippine Muslim Community, Integrated *Madrasah* Education, Islamization in the Philippines